

화학산업 전력 소비량 1.6% 증가

산자부, 1월 전체 산업 소비량 168억kWh ... 석유정제업종 3.3% 확대

1월 한달 동안 화학산업에 투입된 전력량이 26억7600만kWh로 집계됐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4년 1월 국내 전력 소비량은 268억kWh로 과거 최고 기록이었던 2003년 1월 264억 kWh보다 1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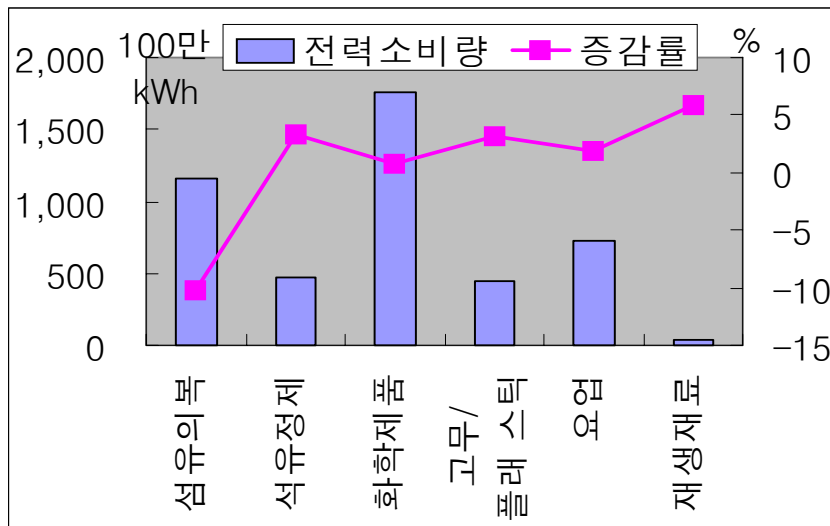
전력 소비량이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증가율이 낮았던 이유는 2004년 1월의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1.0도 높았고 내수부진으로 산업활동이 둔화된 가운데 설 연휴가 1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2003년보다 3일 적었기 때문이다.

이에 따라 제조업 전체의 전력 소비량이 120억kWh로 전년동월대비 0.3% 감소했으나 수출주력업종인 영상·음향·통신은 소비량이 17.2%로 크게 증가했고 자동차산업은 4.0%, 화학제품은 0.8% 증가했다. 특히, 화학제품은 전체 제조업의 전력 소비량 가운데 14.7%를 차지한 18억kWh를 기록했다.

또 석유정제와 고무·플라스틱 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4억5500만kWh, 4억4600만kWh로 각각 3.3%, 3.2% 증가했다.

이에 따라 화학제품, 고무·플라스틱, 석유정제 3개 업종의 전력 소비량은 2003년 1월 2633kWh에서 2004년 1월 2676kWh로 1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력 소비실적(2004.1)



한편, 산업용 전력 소비 증가율은 반도체, 자동차 등의 소비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, 섬유 등의 사용량 감소로 전체 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 1.3%를 밑도는 0.4%를 기록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08>